

오늘의 계시판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오전 10시30분 전남대

- 11월**
-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오전 10시30분 전남대.
 - ▲봉암서원 추향제=오전 10시 장성군 장성을 장안마을. 장성군 유림 100여명 참석 예정.
 -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오후 2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전국 생활체육 론볼대회 개최식=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첨단 론볼리장. 전국에서 장애인선수 등 400여명 참석 예정. 13일까지.
 - ▲목포시 해안선 아간경관 조영디자인 개선사업 최종 보고회=오후 3시 목포시청 상황실. 대불대 산학협력단 최미순 교수가 운영 결과 발표.
- 12월**
- ▲2006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오후 1시

-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본 Masanory Hamada 토목학회장의 기조강연 및 류영창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화관의 '건설교통 R&D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 박영숙 UN 미래포럼 한국대표가 '미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국내외 토목학회 관계자 등 250명 참석 예정.
- ▲제 2회 순천 평생학습축제=개막식 오후 2시 순천팔마체육관. '열린 마음·열린 학습·열린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고사리순새씨나라, 꿈을 여는 어린이 무대, 청소년 희망무대, 실버들의 잔치,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등이 개최. 14일까지.
- ▲제 77회 순천사랑 아카데미=오후 2시 순천문화회관 소극장. 안익인 허영호씨가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강연.
- ▲제 506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

- 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정운천 한국잡다래유통사업단 회장이 '농업의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 ▲21세기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허태근 이화여대 유아CEO 과정 주임교수가 '성공에도 공식이 있다'는 주제로 강연.
- ▲조선대 사범대 음악교육과 정기연주회=1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 ▲남도소리 상설무대 '황송옥 가이금 병창 독주회'=1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 ▲어린이 뮤지컬 '공쥐 팔쥐'=11~13일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오후 1시10분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 ▲몽골 국립민속합주단 초청 연주회=12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관현합

- 주·마두금합주·호치르합주·몽골춤과 관현악·몽골민요 등 연주.
- ▲모차르트 서거 250주년 기념 제 37회 금슬회 정기연주회=12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 ▲빛고를 국악전수관 개관 4주년 기념 국악 대공연=12일(목) 오후 7시 광주빛고를국악전수관.
- ▲남사당놀이 한마당=12일(목) 오전 11시 목포 문화회관 공연장.
- ▲총장추축제 기념 기획초대 '희망 바라보기' 공예·조각전=17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 ▲5인전=16일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 ▲광주대 캐릭터조형학과전=16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 ▲순수미술전 원우회=13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 ▲광주비엔날레 기념 'Paper Propose전'=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별관.
-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별관 2층.
-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미술 오케스트라'=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별관 1층.

뉴스퀴즈

33. 한국인이 지구촌 외교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4차 예비 투표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선출과 총회 인준이라는 공식 선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이 없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 외교통상부 장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반기문 ②한승수 ③한명숙 ④정운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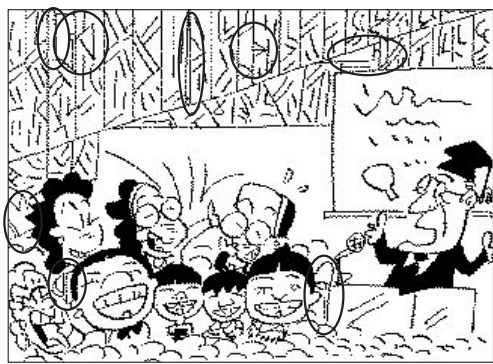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1일(음 8월 20일 癸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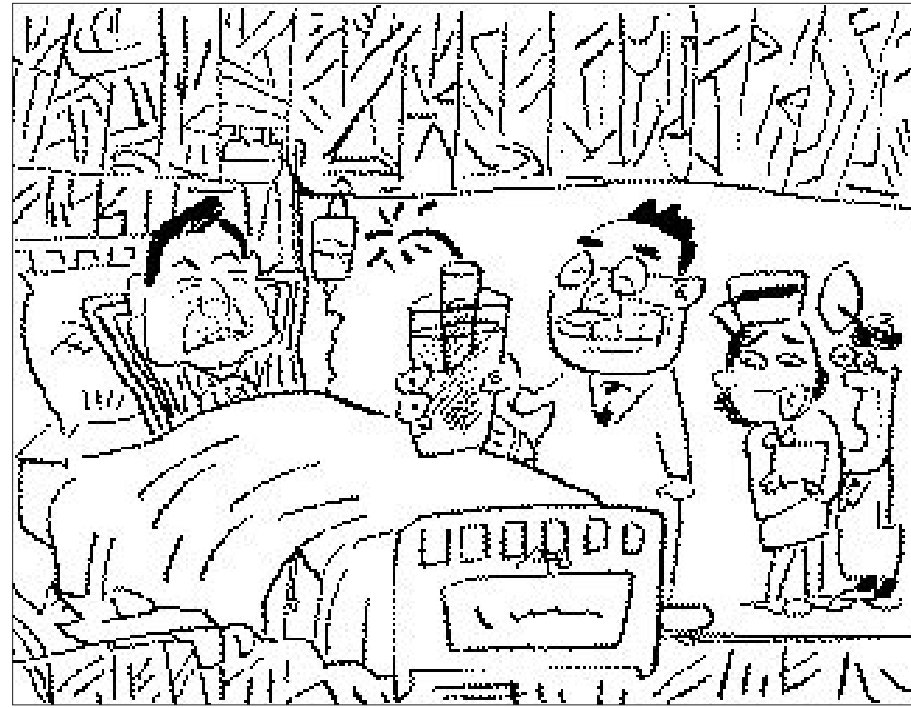
子	36년생 주년의 도움이 있어 고인이 풀려난다. 48년생 예정문제로 구슬수가 생겨나니 명예가 격정된다. 60년생 경험의 결실로 후반기의 전라니 지체롭게 진행하라. 72년생 아들과 많은 대화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84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애정을 되살려라. ♣행운의 숫자: 05, 26
丑	37년생 타인과 구슬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49년생 아내의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라. 61년생 남편이 고인하니 결서 살피라. 73년생 친구의 지혜를 빌리면 수심을 줄일 수 있다. 85년생 젊음보다 경음이 우선이다. 신체의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01, 35
寅	38년생 심상을 굳건히 고집할 수도 있다. 50년생 미리 준비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62년생 힘의 안배를 조절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74년생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8, 32
卯	39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51년생 자녀의 고충이 보인다. 대화하면 풀려라. 63년생 불연이든 이룰수도 있으나 대화로 해결하라. 75년생 형제 부모가 모두나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 04, 42
辰	40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52년생 수리를 역류하면 결과는 없다. 64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험악하니 중심을 찾아라. 76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울라. 큰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06, 28
巳	41년생 작은 병도 살펴라. 53년생 망신일이 열려나니 지난 일을 회개하라. 65년생 타인의 입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니 주변인에게 배려하라. 77년생 잔고 끝에 약속한다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단하라. ♣행운의 숫자: 02, 43
午	42년생 미운사람이 보이면 말조심을 해야 한다. 54년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소득은 작다. 66년생 바쁜 하루가 되니 정신만 가하면 모두가 재물이다. 78년생 애인이 생기지만 마음에는 안 된다. ♣행운의 숫자: 09, 36
未	43년생 분수를 지키면 큰 화도 비껴간다. 55년생 욕심을 버리면 큰 손실은 피한다. 67년생 인생행로에 변화수가 보인다 준비하면 좋을 수 있다. 79년생 여유 있게 생각하라 계획은 꼭 성사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7, 40
申	44년생 화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을 차리면 소화에 그친다. 56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8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니 큰 도움이 되겠다. 80년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21, 25
酉	45년생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57년생 화평정전 마무리가 좋으니 재물을 얻으라. 69년생 옛 일은 잊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81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분수가 생기니 해결은 골뎠다. ♣행운의 숫자: 14, 38
戌	46년생 새로운 문에서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다. 58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잡어서는 말을 조심하라. 70년생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은 쉬워진다. 82년생 멧을 내고 나가보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29
亥	47년생 지난 일이 괴롭힐 수 있으니 옛 일을 살펴라. 59년생 욕심이 부질없다 변화를 삼가 하라. 71년생 진할수록 조심하라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83년생 눈물이 보일 수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03, 4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숨은그림찾기 < 42 >



▲ 지남주 정답 슬리퍼, 바늘, 열대어, 종이배, 음표, 펜촉, 뚝뎀배, 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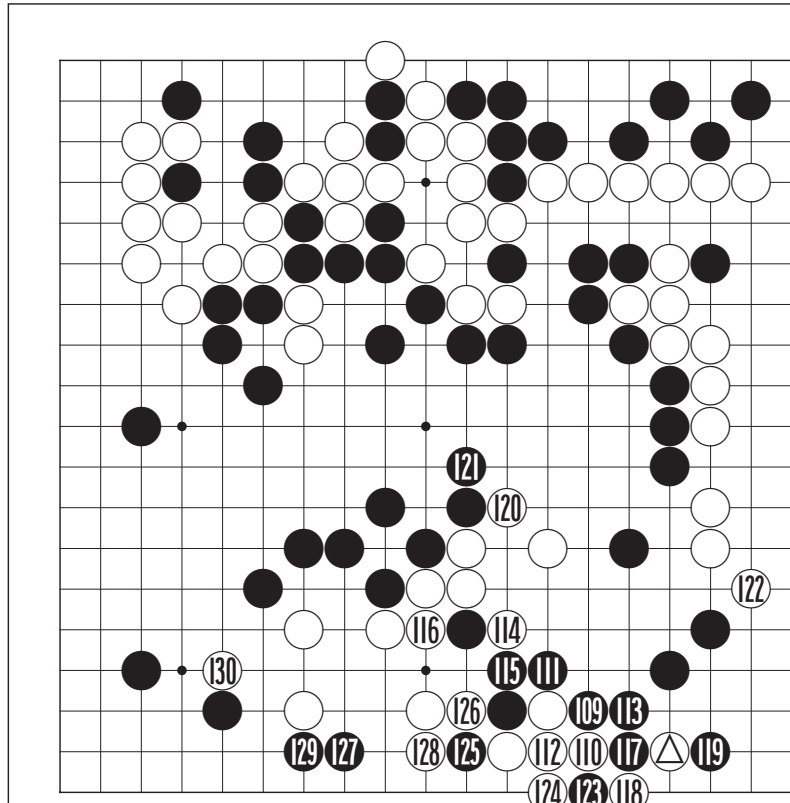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바늘, 다리미, 담배피이프, 슬리퍼, 서클록, 종이배, 다리미, 펜촉, 뭇

슬픈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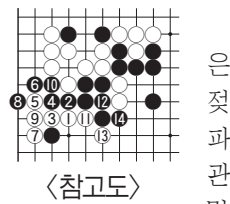
술이라면 죽고 못 사는 두 친구가 있었다.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상 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한 친구가 술을 먹다가 쓰러져 병원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죽기 직전이 되자 슬픈인 다른 친구를 불러 유언을 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위스키 한 병 뿌려주세요." 친구의 유언을 듣고는 한참을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 뿌려주세요. 그런데 내 고향으로 한번 거르고 난 것도 괜찮지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당첨자 조선형·광주시 북구 두임동 이정미·광주시 남구 진월동



제15회 광주시립미술관 미술대전



다. 쉽게 두려고 한다. 이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백 120이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찢러 응수를 물어 볼 자리. 혹은 불리한 형편이므로 흑 2로 찢어 잡으려 가야 하는데 5로 찢혀 있고 11과 13이 선수가 되어 15쯤에 자리를 잡으면 절대 잡힐 말이

계속되는 헛발질 제7보(109~130)

白 옥광석 <광주시교육청 A> 黑 서재중 <나주시청 A>

지금 옥 5단은 낙관무드에 찢어있다. 낙관파들은 대개 비관과에 비해 치밀함이 떨어진 것이다. 쉽게 두려고 한다. 이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백 120이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찢러 응수를 물어 볼 자리. 혹은 불리한 형편이므로 흑 2로 찢어 잡으려 가야 하는데 5로 찢혀 있고 11과 13이 선수가 되어 15쯤에 자리를 잡으면 절대 잡힐 말이 아니다. 이런 급소자리를 두고 백 120로 끝내기를 해 간 것이 서 5단의 분노를 일으켰다. 109로 붙여 가자 기세로 110에 넘었는데 이 수도 지름이러도 111에 늘어 중앙을 중시해야 했다. 결국 흑 115까지 기본종계 선수를 하고 119를 두니 백은 한 것이 전혀 없다. 122 역시 엉뚱한 수. 서 5단은 123부터 125까지 일련의 수순을 거쳐 127로 급소를 찢러 기세를 한껏 올리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광주 Kixx 한국바둑리그 선두

광주 Kixx가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바둑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매일유업을 3-1로 꺾고 리그 1위에 복귀했다.

Kixx는 흥민표, 최철한, 박정상 선수가 내리 승리를 따내 이창호 9단이 분전한 매일유업을 가볍게 제압했다.

승점 22점을 기록한 Kixx는 경기 한 게임을 승점 1점차로 밀어내고 다시 선두에 나섰다.

이날 대국으로 11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감한 바둑리그는 12일부터 12라운드 1게임이 시작된다. 12라운드 첫 번째 게임에서는 대전 신성건설과 부산 파크랜드가 격돌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50>

Are we all finished?
우리 모두 일이 다 끝났지?

A: Are we all finished?
B: Not yet, Jim. Don't be a clockwatcher. We still have one more hour to go.
A: Really? I don't have anything to do.
B: Oh, yes! Here you are. Give me the summary report on the project by five, all right?

A: 우리 모두 일이 다 끝났지?
B: 아니, 아직, Jim! 그렇게 정시 퇴근족은 되지 말라구. 아직 한 시간 이상이 남았잖아.
A: 정말? 난 할 일이 없는데.
B: 아, 그렇지! 5시까지 그 계획에 대해 요약보고서를 나한테 건네주세요. 알았지?

clockwatcher :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만 마음을 쓰는 직장인(학생)
to go : 남아 있는, 아직(도) 있는
- We have three days to go : 아직 사흘이 있다
summary report : 요약보고서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50>

ありがとう
고마워

A: あっ、しまった。財布(さいふ)も定期券(ていきけん)も忘れてきちゃった。
B: 仕様(しよう)がないわね。はい...バズ代一繕(いっしょ)に出しておいてあげろわ。
A: いやあ、助(たす)かるよ。ありがとう。
B: それより、早く行きましょう。間(ま)に合(あ)わなくなるわ。

A: 앓, 큰일났다. 지갑도 정기권도 잊고 나왔어.
B: 어쩔 수 없군. 저... 버스를 같이 내줄게.
A: 아야~ 살았다. 고마워.
B: 그것보다 빨리가자. 시간맞춰 못가게 되.

定期券(ていきけん) : 정기승차권의 약어
仕様(しよう)がない : 어쩔수 없다. 방법이 없다
助(たす)かる : 살아나다, 구제되다
間(ま)に合(あ)う : 정해진 시간에 늦지않고 일이 진행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풍구워 <468>

嫫毘
심각하다

A: 您怎么了? 哪儿不舒服?
B: 头疼。
A: 头疼? 哪儿疼?
B: 太阳穴。
A: 太阳穴? 哪儿疼?
B: 太阳穴。
A: 头疼? 哪儿疼?
B: 太阳穴。
A: 头疼? 哪儿疼?
B: 太阳穴。

嫫毘 : 심하다, 걱정하다, 불안하다, 걱정하다
头疼 : 두통, 머리가 아파하다, 아파하다
太阳穴 : 태양혈, 관공혈, 관공혈, 관공혈
哪儿 : 어디, 어디서, 어디서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68>

百濟(백제)
일백백, 건넌 제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溫祚)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都邑)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십제(十濟)'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백제(百濟)의 시조이다(기원전 18년). 당시 한강 유역은 위만조선(衛滿朝鮮)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낙랑군(樂浪郡)의 지배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한강유역은 문명이 닿지 않은 하찮은 땅 정도로 여겨지면서, 남쪽의 마한이 지배하고 있었다.

온조는 함께 온 무리들과 농업의 중심지인 한강유역에 살면서 자신의 혈족(血族)의 뿌리가 부여(夫餘)에 있음을 널리 알렸다. 한편 함께 남하한 비류는 해산물이 풍부한 인천 부근의 바닷가 미추홀에 자리 잡았으나, 땅이 습하고 우물물이 짜서 풍토병으로 죽고 그 신하와 백성들은 온조에게로 왔다. 온조란 이름이 '따뜻하고 복되다'는 뜻이므로, 결국 인덕(仁德)으로 비류의 세력까지 흡수하여 나라를 일으킨 것이다. 이때부터 '십제'를 '백제'로 바꾸어 불렀다. 한편 백제의 어원을 '백가제해(百家濟海 : 백 개의 부족이 바다를 건넌다)'로 보기도 하고, 또는 '백성(百姓)이 왕을 따라 물을 건넌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왕의 성도'라고도 설명하기도 한다.

<한예민(韓睿嫻)>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